



미디어 교육, 미디어 공모전까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미디어 교육, 미디어 공모전까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조수민 기자

"나는 왜 뉴스를 들을 수 없을까?", "왜 이 방송에는 자막이 없을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정보의 접근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 과연 모두가 그 속에 '함께'하고 있을까요?

방송과 통신이 국민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포용의 기술로 묵묵히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권과 미디어 교육** 중심으로, 방통위가 펼치고 있는 **포용적 미디어 환경 조성 정책**을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디지털 정보격차'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격차 상황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일반 국민의 77.5% 정도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77.5점... 높은 점수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22.5점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숫자 뒤에는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은행 업무를 못 본다"거나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미디어 소외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 수치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76.9%에서 올해엔 0.6%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작아 보이지만, 이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있답니다.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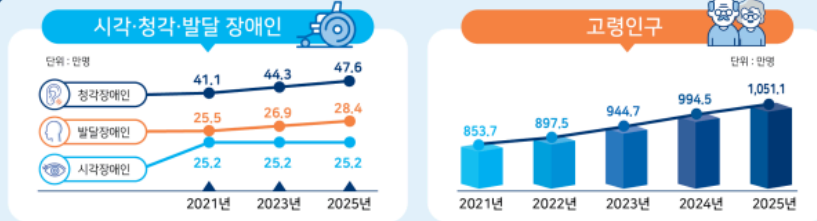


✔️ 방통위의 '포용적 미디어 환경 조성' 정책

먼저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미디어 소외계층 증가 추세('21~'25)



▶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 맞춤형 콘텐츠 제작지원
- ▶ **비실시간 서비스**-일반PP까지 제작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방송프로그램 표현방식 표준화
-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센터 지역 확산
- ▶ 맞춤형 콘텐츠 장애인 미디어 교육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신기 보급
- ▶ 방송사별 장애인용 플랫폼 운영
- ▶ **모든 시·청각장애인** 수신기 보급
 - 일괄 구매 보급 → 구매비용 지원
- ▶ 화면해설 전용 통합 플랫폼 구축
- ▶ 장애인방송 유료방송 및 표준화

디지털 신기술 의 포용적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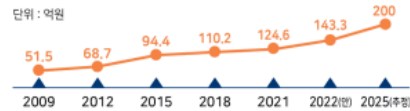
- ▶ 스마트 수어방송 시작
 - 일부 방송 한정 수어 위치·크기 조정
- ▶ **스마트TV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자막·수어 화면 조정 및 음성 안내 기능 탑재
-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 시각장애인-재난문자해설, 청각장애인-재난정보수어 전달 등
- ▶ 완벽한 인공지능 아바타 자동수어·AI 화면해설 기술 개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 장애인방송 인식 부족
- ▶ 접근성 기술 표준화 미비
 - 제조사별 수신방식 상이
- ▶ 법제도 미흡
- ▶ 포용사회 대국민 인식개선 연중 홍보
- ▶ 의무편성비율 상향 및 비실시간 제공 의무화
- ▶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제도 도입
- ▶ 장애인미디어접근 기본법 제정 및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미디어 소외계층 예산 현황

▶ 2009~2025년(안)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세부 내용 이미지 ©방통위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는 21년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발표식 행사를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해당 종합계획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목표로 수립되었는데요.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방송 관련 법·고시 제정, 장애인방송 서비스평가 도입방안, 신규 사업 발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령층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TV에는 자막위치 변경, 자막크기 조절, 음성 성별 조정, 수어화면 분리 및 확대 등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니다! 온 국민 미디어교육

✔ 동네마다 미디어교육센터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통위는 전국 각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미디어센터란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미디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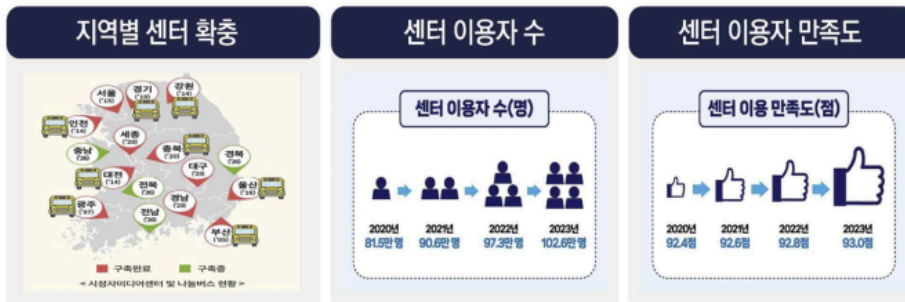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관할하고 있죠.

2019년에는 전국 8곳에만 존재했지만, 2023년에 추가건립이 이루어지며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양질의 미디어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익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 전국 거점망 확보

-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미디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교육 설비를 갖춘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건립(19년 8개→23년 12개) **▶**



▲ 지역별 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전망 ©방통위 누리집

✔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이밖에도 유아, 청소년, 성인, 고령층 및 다문화가정 등 국민의 여러 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 전 국민 미디어교육 실시

-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필요역량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 운영으로 국민의 미디어 이해·활용역량 제고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924개 기관)	창의체험(1,239명) 및 진로연계 교육(3,232개교)	미디어 이해 수준별 상설 교육(2,433개 강좌)	미디어 환경적응 및 사회참여 교육(597개 기관)

▲ 전국민 미디어 교육 운영 현황 ©방통위 누리집

“

✓ 미디어에 참여하는 즐거움, ‘공모전’으로 키우다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도 마련돼 있는데요!

방통위는 매년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미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불공정 방송 사례 제보부터, 정보 접근성에 대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통해 모든 시민이 직접 미디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 「(가칭)학생미디어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교과 및 창의적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확산(24년~) **PM**
- ※ 연도별 입상작은 ‘미리네’ 탑재·공유, 연수·워크숍 등과 연계하여 우수사례 확산



▲ 미디어 교육 관련 공모전 이미지 ©방통위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누리집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 변화에 함께 참여하고, 편의성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디지털 정보에 닿기 어려운 사람들', 즉 미디어 소외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할 경우,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정보 불균형을 넘어 교육·복지·경제 영역까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디지털 정보 사회!
그 변화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그려 나가겠습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16기 국민정책기지도단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